

가해자 처벌 강화 · 피해자 보호 지원 주력

익산시,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 마련 추진

익산시가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익산시의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은 지난 2016년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공무원이 해임된 사건과 관련해 시민 단체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지난 9일 익산시는 최양욱 복지환경국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비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공감한다"며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산시는 먼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다.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징계수위를 중징계로 강화하고 직무 배제, 근무성적 최하위 평가, BSC 성과 감점, 복직포인트 전액 삭감 2차 피해 가담자 동시 처벌 등에 나선다.

시는 또 기관장 직접 상담제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기관장 즉시 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시장 별도메일 계정을 운영하는 한편 접수와 동시에 상담과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행정포털 내 성희롱 신고 게시

판을 운영하고 성희롱고충상담소 운영 내실화·정례화와 함께 공무원노동자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시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주력한다. 피해자의 법적대응 비용지원과 정신적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지 않도록 이력을 관리하고 신고자의 인사 불이익 방지, 피해자 휴직·병가로 인한 업무공백 시 인력을 우선 충원한다.

심리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전문기관 1:1 상담, 피해자 특별휴가제 등 심리치유를 위한 예산지원도 병행한다.

시는 성희롱 재발방지 교육과 조직문화 개선에도 중점을 둔다.

사이버교육을 의무화하고 전문강사 초빙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성희롱 교육을 강화한다.

건강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집진한 회식문화 의식개선 유도, 존중하는 언어문화 정착, 성적 농담·신체 접촉 금지,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

시는 또 정부의 성폭력 근절대책과



익산시가 지난 9일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최양욱 복지환경국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연계한 방지대책 보완에도 행정력을 결집한다. 아울러 민간부문 양성평등 운동을 전개하고 익산시성희롱예방지원 규정을 개정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양욱 국장은 "직장내 성폭력 근절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철저한 점검과 보완에 나서겠다"며 "더 이상 이 같은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장내 성폭력을 완전히 추방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청공무원노조는 지난 2016년 당시 사무관 A씨가 인격모독 발언과 성희롱을 일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전북도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그를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했다.

이에 A씨는 익산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으며 시가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대, GM철수 위기대응 정책 발굴 워크숍

군산대학교는 14일 오후 2시 군산대학교 산학협력관 이노테크홀에서 '한국 GM 철수 위기대응 정책발굴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는 전북도, 군산시, 군산시의회, 한국산업단지공단전북본부, 자동차융합기술원·건설기계부품연구원, 산업체 및 관계기관 관련자 등 다수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워크숍은 에너지, 자동차·창업, 정보통신 조선 등 산업분야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한국지엠 철수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 정책제안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워크숍은 한준수 군산시 부시장과 군산대학교 제 8대 총장 임용후보자인 곽병선 교수의 인사에 이어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는 ▲유기하 전주MBC 선임기자의 '사태와 지역리더십-이카로스의 추락' ▲노재규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부단장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운영 활성화 방안 제언' ▲신효균 전 JTV대표이사의 '접근방법의 반성과 개선책에 중점을 둔 장기적 대안 모색의 방향' ▲최연철 군산대 새만금CT융합인재양성사업단장의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지역산업 혁신방안' ▲김현철 군산대 창업지원단장의 '수소경제와 창업을 중심으로 한 '군산경제 장단기 정책제안' ▲김영철 군산대학교 산학협력관장의 '에너지 신산업 공공시민·노동자 펀드 조성' 등으로 이어진다.

/군산=김관곤 기자

익산시-원광대학교, 인구증대 위한 간담회 개최

익산시(시장 정연호)가 인구 증대를 위해 연일 발빠른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최근 익산시 투자유치과(국장 김주일)는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송문규)과 간담회를 열고 인구늘리기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장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는 대학 및 시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시 최대 현안인 인구문제와 관련하여 시와 지역대학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주일 문화산업국장은 "익산시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30만명이 붕괴 되었다"며 "인구가 감소하면 교부세가 줄어드는 등 시 현안사업에 영향을 미쳐 대학 기업 소상공인을 비롯한 익산시의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며

지역대학인 원광대학교에서도 미전입 학생들이 주소 이전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문규 산학협력단장은 "학령인구 감소는 대학 입학정원 감소로 이어져 학교에서도 인구늘리기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학교 게시판에 전입 혜택을 공지하거나 학생회 등과 연계하여 미전입 학생들이 익산시로 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학자금 지원(학기별 10만 원, 최대 80만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익산시립카드 발급, 자전거 보험 혜택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기숙사, 원룸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미전입 실거주 대학생(원)생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전입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익산=정양원 기자

청년 창업농의 정서적 정착 지원 앞장

익산시 청춘어람, 농정원 국외훈련 공모 선정

익산시 청년농업인의 자주적인 학습모임인 청춘어람이 2018년 농업신산업교육문화정보원의 국외훈련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농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산하 기관으로 농업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년 국외훈련을 공모·운영하고 있다.

청춘어람이 공모한 현장주문형 분야는 농업 관련 단체 및 학습모임 등이 현장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국외훈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안하는 형태이다.

청춘어람은 지속가능한 지역농업과 청년농업인이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자주적인 학습모임으로 매월 정기적인 학습을 통해 미래농업의 핵심주체로서 개인을 리더로 성장시키고,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을 목표 운영하고 있다.

회원들은 2017년 4월부터 농업 패러다임의 변화, 6차산업 조직화 등을 주제로 6회의 정기학습과, 로컬푸드 및 청년농업인 중심의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워크숍 및 견학 등을 3회 운영하였다.

특히 지역 내 청년농업인들의 교류 및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캠페인 및 기부활동을 통해 배움이 실천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농정원 공모에 선정된 주제는 청년 창업농의 정서적 정착 지원 모델 발굴 연수로 일본의 청년창업농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민간단위의 노력,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 사례지를 방문하게 되며 연수결과를 바탕으로 청년농업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익산형 정착지원 모델을 발굴하고, 희망농정위원

회에 정책적 제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승호 청춘어람 회장은 "1년 동안 학습모임의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하며 "청춘어람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습하며 함께의 가치를 실천하는 현장의 조직이 되겠다"고 뜻을 밝혔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최봉섭 미래농업과장은 "청년농업인들이 농업과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지원과 청춘어람과 같은 포레 세대들이 고민을 공유하고, 농업 현장의 즐거움을 함께하는 정서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지속적으로 현장의 조직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정양원 기자

익산시, 축산농가 위한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

익산시는 축산농장에서 발생한 폐사체를 신속하고 위생적인 처리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관내 축산업 허가를 낸 농가로서 가축방역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104백만원 중 50%를 지원한다.

동물사체처리시설은 농장 내에서 발생한 폐사체를 농장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자체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처리방식으로는 고온고압방식과 분쇄건조방식이 있으며 고온·고압방식은 포유류농가에 해당되며, 분쇄·건조방식은 가금류 농가에 해당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구비서류를 갖추고 신청하면 된다.

시관계자는 "위생적인 처리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물사체처리시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정양원 기자

지곡동 현대엠코, 군산시 3호 금연아파트 지정·고시

군산시 지곡동 소재 현대엠코 아파트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통해 나운동 현대차아파트(나운동 소재), 해나지오 아파트(지곡동 소재)에 이어 3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 고시됐다.

위 아파트는 금연아파트로 지정, 고시된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2일부터는 지정된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시 보건소는 현대엠코 아파트에 대해 금연포스터 부착, 현수막 게시 등 금연 구역에 대한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며, 추후 일정을 편성해 현대엠코 아파트와 지곡동 금연아파트를 대상으로 이송



금연클리닉도 운영하는 방침이다.

전형태 보건소장은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기타 금연아파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보건소 ☎460-3273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관곤 기자

어린이 행복동행

풍향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Dream Hub GUNSAN 군산시 GUNSAN CITY